주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안에서의 우리가족

Written by 곽재윤 (Andrew Kwak) 초등 5학년

성경말씀에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 22:39, 마가 12:31, 누가 10:27)"라는 말씀은 여러번 쓰여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번 강조하시는 이웃사랑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본다. 즉,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가족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인 것 같다.

우리 가정은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 또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성경말씀을 읽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우선 엄마는 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바쁘다는 핑계로 잘 못한다고 하신다. 아빠는 거의 매일 출근과 퇴근시간에 성경말씀을 읽고 있다고 한다. 나는 예전에 나성영락교회에 Bible Reading Class에 들어가서 참석하여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매일 읽는것이 힘들었고, 수업시간때만 주로 읽었었다. 지금은 Bible Reading Class 시간과 다른 Activity시간이 겹쳐서 참여를 못하고 있다. 솔직히 성경을 나 혼자 읽기가 조금 귀찮기도 하다. 동생들은 아직 너무 어려서 글씨를 못 읽는다. 그래서 동생들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말씀을 귀로 듣고 있다. 나의 생각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바빠서 못읽는 사람도 같이하면 읽을 수 있고, 또 왜냐하면, 1번 답에서 내가 썼듯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모두 성경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가정은 성경말씀을 읽는 것을 잘 실천하지 못해서 반성하게 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도와주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정이 되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의 가르침 같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대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못되게 구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모든것을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이와 같이 이웃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배려하며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정이다. 또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야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가정이 성경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다. 사실 동생의 학교친구가 이웃에 살고 있는데, 그 가족하고만 알고 나머지는 누가 이웃에 살고 있는지 바로 앞집과 그 옆집만 빼고는 얼굴을 잘 모른다. 하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나와 내 동생들은 이웃들의 집과 차고앞에서는 씨끄럽게 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란 우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크리스천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모두 믿는 가정이다. 사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성경말씀에 나온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고 그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모두 성경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